『종교와 문화』 제21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1, pp. 25-48

호주 원주민신화에 나타난 여성상징 연구:

카툼바 자매신화와 와윌락 자매신화를 중심으로

안 신*

Ⅰ. 서론: 자연을 설명하는 신화
Ⅱ. 카툼바 자매신화의 상품화
Ⅲ. 원주민 신화에 대한 진화론의 설명
Ⅳ. 와윌락 자매신화와 그 해석
Ⅴ. 삶의 철학으로서 꿈꾸기
Ⅵ. 결론: 자연과 타자는 확대된 자아이다

Ⅰ. 서론: 자연을 설명하는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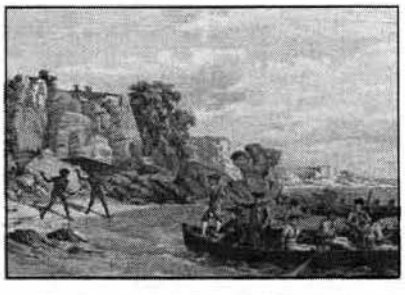
인간은 거대한 자연을 마주하며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과 더불어 자연과 구별된 독자적인 지위를 강화해 왔다. 최근 터키는 강진으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었고 태국도 홍수로 방콕이 물에 잠기는 국가재난을 경험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각불안정과 기후변화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려 하지만 가능한 설명일 뿐 확실하지는 않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로도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기력을 경험한 인간은 오랫동안 신화적 설명을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하여 유럽의 경제를 마비시켰고 매년 계속되는 화산재의 분출은 항공기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2만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도 인간의 무력함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아이슬란드사람들은 화산을 '지옥의 문'(the gate of the hell)으로 묘사하고 그곳에서 분출되는 화산재를 '날아다니는 영혼들'(flying spirits)로 보았고 일본사람들은 지진을 일으키는 커

* 배재대학교 종교학 교수, shinahn@pcu.ac.kr

다란 오오나마즈(大鯰, 큰 메기)의 등 위에 카시마(鹿島)신이 요석(要石)을 올려놓아 통제한다고 설명했다([그림 1]). 고대인은 일반적 패턴을 벗어난 자연현상들에 대하여 '신화 만들기'(myth-making)의 과정을 통하여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1] 이러한 신화화의 과정은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연현상을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과 극복이 가능한 가시적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마찬가지로 올해 미국에서 5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토네이도(tornado)에 대해서 이전에 살던 북미의 원주민(native American)들은 분노에 찬 '폭풍의 여신'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설명했다.[2] 이와 같이 자연을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여성 상징을 사용해 왔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재론적 기반이 되는 근원적인 생명을 담고 있는 존재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광활한 대륙에서 채집과 이주를 해 왔던 호주의 원주민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림 1] 메기와 요석

'신대륙'(new continent)을 발견한 서양의 백인들은 물리적 자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신화 만들기를 통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폭력적 약탈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했다. 1770년에 쿡(James Cook, 1728-1779) 선장이 호주의 동부 해안 보타니만에 도착한 이래로 유럽에서 이주 온 백인들은 아메리카대륙에서 그랬듯이 '자유'와 '개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서쪽으로 이주해 나갔다. 그들이



[그림 2] 호주에 상륙한 쿡 선장

1) 조셉 캠벨 · 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The Power of Myth), 서울: 고려원, 1992, p. 311. 신화학자 캠벨(Joseph Campbell, 1904-1987)은 신화를 "궁극적 진리에 버금가는 진리"를 담고 있는 시와 메타포로 규정하고 인간은 신화의 신비를 체험하면 새로운 조화와 빛의 힘을 얻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2) Nani Suzette Pybus, Whirl Wind Woman: Native American Tornado Mythology and Global Parallels, Oklahoma State University PhD Thesis, 2009, i-iixi.

목격한 거대한 숲과 사막 그리고 산하, 그 안에 있는 생소한 동식물들은 상상력에 기초한 신화적 설명의 대상이 되었다. 결코 건너지 못할 것만 같았던 깊은 계곡과 유칼립투스 나무로 우거진 미지의 숲은 백인들이 '새로운 지도'(new map)를 투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친숙한 장소로 변화되었다.

호주대륙은 구석기시대부터 원주민 "아보리진"(Aborigine)의 땅이었다. 그러나 18세기말부터 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백인들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대영제국의 식민지'라는 의미에서 남반부의 남서부 지역을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로 명명하였다. 사회인류학자들은 원주민의 친족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유독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해와 해석의 난항을 겪고 있다. 미시간대의 인류학자 연고얀(Aram Yeongoyan)은 서구학자들이 지닌 종교개념의 한계와 종교연구방식의 혼란이 그러한 어려움을 조장했다고 보았다.[3)]

본 논문은 호주 원주민의 신화들 가운데 자매신화(姉妹神話)에 나타난 여성상징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복자 백인들은 원주민의 신화가 지닌 여성의 생명력을 의도적으로 화석화시킴으로써 역사적 침탈을 정당화하였다. 관광 상품으로 재포장함으로써 과거 전쟁의 승리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였고 신비한 존재에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해 버렸다. 호주 원주민의 신화들은 부족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카툼바 자매신화와 와윌락 자매신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II. 카툼바 자매신화의 상품화

정복자 백인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주체가 되어 신화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사용했고 상업적으로도 이용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강요된 상황을 감내하기 위하여 먼저 원주민이 지니고 있었던 세계관을 왜곡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이야기에 투입했다.[4)] 백인들은 신화가 적어도 원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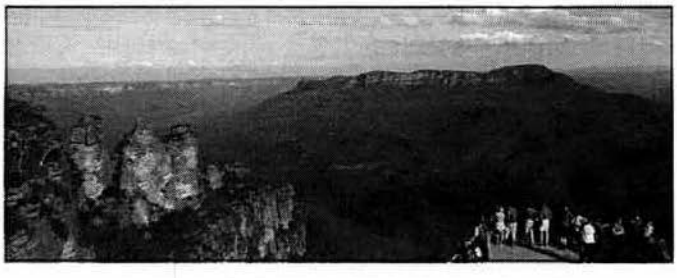
---

3) Aram A. Yeongoyan, "Economy, Society and Myth in Aboriginal Australia," in Traditional Aboriginal Society, ed. by W. H. Edwards, Melbourne: MacMillan Company, 1987, p. 214.

4) 웬디 도니거 오플래허티, 『다른 사람들의 신화』(Other Peoples' Myths: The Cave of

의 정신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호주원주민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물에 대하여 신화적 설명을 제공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삶이 신화적 설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신화가 만들어졌다. 신화는 모국(母國) 영국이 그들을 신대륙에 추방해버렸다는 잔혹한 기억을 지녔던 백인 죄수들에게도 필요한 설명의 기제였다. 창살 없는 감옥에 유배된 영국 사람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던 하일랜드에 위치한 세 자매 봉우리(Three Sisters)를 연상케 하는 공간적 좌표들을 유배지에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고향을 만들고 그곳에 거주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그림 3]). 이처럼 신화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가치를 증진시켰다.

신화의 역할은 현대의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도 역동적으로 드러난다. 20세기 후반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던 종교에 대한 세속화 이론들은 전통적인 종교들이 제공해 온 성스러움의 체계들이 급속도로 쇠락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정작 성스러움의 가치는 새로운 형태와 구조로 변화되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물질의 소유와 성공의 여부가 세속적 행복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어 버린 현대 사회에게 신화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이 조우하는 거의 모든 것을 일종의 상품으로 만듦으로써 어떻게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점에서 신화는 인간이 단순히 자연을 의미 있게 조우하는 데 그 역할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난 자연에 특정한 이름과 스토리를 부여하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 분유함으로써 그 자연물을 인간문화의 유산으로 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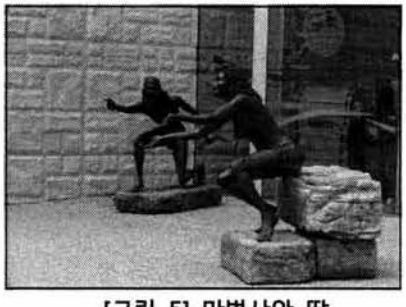
[그림 3] 전망대에서 바라 본 세 자매 계곡

백인이 망각하길 원했던 역사적 추방의 기억은 호주대륙에서 원주민의 신화적 상상력과 결합되어 독특한 신화로 재탄생하였다. 예를 들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카툼바에 원시림 블루 마운틴즈(The Blue Mountains)

Echoes), 류경희 역, 서울: 청년사, 2007, pp. 20-22.

은 이러한 신화의 변형을 잘 보여준다. 이 계곡에는 전망대(Echo Point)의 왼편에 9백 미터가 넘는 세 봉우리가 연이어 서 있다. 일명 "세 자매"라고 알려진 이 돌기둥들의 생성에 대하여 원주민들은 '꿈의 시대'(dream time)와 관련된 기원신화를 구전해 왔는데 현재 호주에서는 관광문화의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3]). 이러한 세 자매신화의 유형은 그리스신화에서 인간과 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이라이여신들의 형태로도 등장한다. 운명의 실을 짜는 클로토, 삶을 할당하는 라케시스, 운명의 실타래를 자르는 아트로포스는 제우스를 능가하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속의 '삼신(三神)할미'로 집집마다 아기를 점지해 준다. 여기서 우리는 여신들이 주로 생명력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마술에 걸린 자매들



[그림 5] 마법사와 딸

호주 카툼바 부족의 토착신화에 따르면, 부족의 주술사에게는 세 딸 미흐니, 윔라흐, 구네두가 있었다([그림 4].[그림 5]). 그런데 이 세 자매가 북동쪽에 위치한 네피안 부족의 세 형제들과 모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카툼바 부족의 법에 따르면 부족의 어떤 처녀도 다른 부족의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이 세 자매를 몰래 무력으로 납치하려고 했고 그 결과 두 부족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주술사는 주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세 딸을 그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높은 돌기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부족 간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로 변한 딸들을 인간으로 되돌릴 계획이었지만 전쟁 중에 주술사가 사망하면서 결국 세 자매는 영원히 돌기둥으로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세 자매 신화도 공존하고 있다. 두 부족 간의 전쟁이 신화의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미지의 괴물이 등장하는 또 다른 신화가 있다. 이 변형된 신화에서는 약탈을 일삼는 다른 원주민 부족의 공격이

언급되는 대신에 오히려 광활한 계곡 아래에 사는 미지의 사나운 괴물이 등장한다. 계곡 아래 잠들어 있는 괴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주술사의 세 딸이 괴물을 실수로 깨우게 된다. 깨어난 괴물은 세 딸을 추적하게 되는데, 달아나는 세 딸을 구하려고 주술사는 딸들에게 마술을 걸었다. 딸들이 모두 돌로 변하자 이에 괴물이 화가 나서 주술사를 살해하게 된다. 결국 주술사의 죽음으로 세 자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영원히 돌기둥으로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두 신화의 공통점은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부족의 남자들이든 괴물이든 상관없이 카툼바부족의 여자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주술사를 포함한 남자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다. 호주국립대학교의 역사학자 토마스(Martine Thomas)는 이 신화에 호주의 식민지화에 대한 역사적 상흔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죄인이 되어 모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외딴 대륙에 버려져 정착하게 된 백인들은 이곳의 원주민과 일련의 전쟁을 통하여 결국 그 땅을 물리적인 힘으로뿐만 아니라 신화적 이야기의 형태로도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백인들의 침략은 원주민 부족 간 전쟁으로 윤색되었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딸들이 돌로 남게 된다는 운명을 예측하지 못한 주술사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원주민들의 열등성을 비판하고 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여성들이 돌기둥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름답지만 통제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의하여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신화의 세 자매는 기독교 성경의 하와와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와 비슷한 이미지를 지닌다. 이처럼 신화의 왜곡을 통해 토착문화를 대표하는 여성의 생명력은 상실되고 원주민들은 백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열등한 인종으로 물화(物化)되었던 것이다.

Ⅲ. 원주민 신화에 대한 진화론의 설명

원주민 신화에 나타난 여성상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의 세계관에 담겨 있는 존재론의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루마니아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진화론과 낭만주의의 설명을 모두 거부하면서 호주 원주민신화에 나타난 그들의 종교적 창조성이 지닌 정교함에 주목하였

다.[5] 그에 따르면 신화에 대한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에 따른 설명은 원주민의 삶에 나타나는 신화의 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세계관의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s)을 단순히 나열하여 사회의 결속과 질서를 지향하는 인간의 보편적 의식을 발견하는 방법보다는 원주민들이 신화를 통하여 삶에 부여하는 그들의 종교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

호주국립대학교의 인류학자 스태너(W. E. H. Stanner)에 따르면 호주 북부의 무린바타부족은 삶을 좋고 선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역경을 개인이 이해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7] 그들이 지닌 삶의 철학은 어떤 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값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란다부족을 연구한 스트렐로(T. G. H. Strehlow)도 호주 원주민들이 초시간적인 삶의 존재론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8] 과거 서구의 지성사에서 세계 종교를 단선적으로 설명하는 진화론은 호주 원주민의 부족들을 "가장 낮은"(the lowest)단계에 속한 인류로 여겼다. 서양인들은 그들을 '타자'(他者)로 만들었고 창조와 자연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조야한 개념을 지닌 저급 인류로 간주해 왔다. 유럽인은 심지어 그들에게 어떤 예배의 개념도 어떤 창조자의 개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혹자는 백인들의 영향을 받아 종교사상이 일부 나중에 발전되었다는 서구중심적인 문화전파설의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9]

호주 원주민은 꿈의 존재론에 기초한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밤에 배회(徘徊)하는 악령들은 질병을 발생시키고 부족의 주술사는 이를 치유한다. 그는 다양한 행동과 주문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령(祖靈)이나 초월적 힘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비가시적인 존재로 만들어 하늘

---

5) M. Eliade, Australian Relig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xvii. 엘리아데는 신화적 사고를 분석함으로써 원주민의 "일반적"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한다.

6) 임봉길 외, 『세계 신화의 이해』, 서울: 소화, 2010, pp. 27-28.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를 "과거의 사건이나 잡다한 사실, 자연적 우주적 현상, 사회제도, 인간의 애증, 인간관계를 엮어서 새로이 만든 가구"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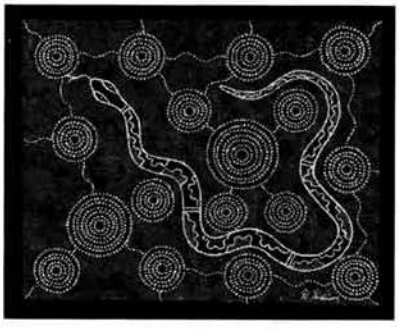
7) W. E. H. Stanner, On Aboriginal Religion, Sydney: SUP, 1966, p. 37.

8) T. G. H. Strehlow, Songs of Central Australia, Sydney: Angus & Roberston, 1971, p. 658.

9) G. T. Bettany, The World Religions: A Popular Account of Religions Ancient and Modern, London: Ward, Lock & Co., 1890, p. 25.

을 날아다니고 적들을 파괴하는 위력을 보인다. 호주의 원주민은 꿈의 실체를 확신하므로 자고 있는 동안에 영혼이 몸을 떠나 다른 영혼들을 만난다고 믿는다. 그들의 꿈의 존재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종교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에 호주의 토착종교를 연구했던 호윗(Alfred William Howit, 1830-1908)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은 (1) 스스로 생겨난 존재들이 이후 다른 존재들을 이차적으로 창조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 모든 존재들을 만든 구름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가 세 아들을 거느리고 있고, (3) 커다란 무지개 뱀이 모든 일들을 발생시킨다고 믿는다([그림 6]). 특히 호주 남부의 원주민들은 일월성신(一月星辰)이 과거에 지상에 거주했다고 믿는다.[10] 호주 원주민은 갑작스러운 죽음도 신화적 존재론으로 설명한다. 부족의 적이 흑주술을 행하여 죽음이 야기된 것으로 파악하므로 그 주술사를 찾기 위하여 망자의 친척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망자의 무덤 주위에 흙을 부드럽게 다져 놓으면 그 주변 위를 지나가는 동물이나 벌레의 흔적을 추적하여 살인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복수하게 된다. 제대로 매장되지 않은 시신의 영혼들은 악령이 되어 지상을 배회한다고 믿는다. 퀸즈랜드의 한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고 백골이 들어나듯이 껍질이 벗겨져 흰 색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영혼관을 믿었다면 호주에 처음 도착한 백인들을 원주민들이 만났을 때 이웃부족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의 영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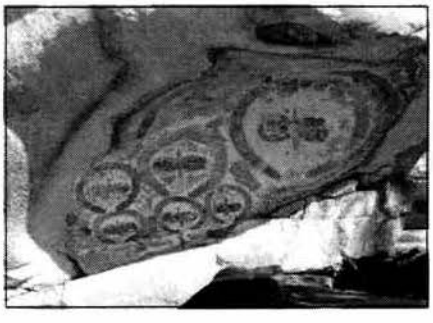
[그림 6] 무지개 뱀

원주민의 장례식은 주로 매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때에 따라 나무 위에 올려놓거나 화장을 하기도 한다. 미망인은 머리를 밀고 애도(哀悼)를 의미하는 흰색 진흙을 온 얼굴과 몸에 바르고 망자의 덕을 칭송한다. 망자의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상에 남아 방황할 수도 있다. 남은 자들은 가능한 한 이 망자의 영혼이 지상의 배회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기도한다. 또 다른 부족은 망자가 차원이 다른 높은 하늘로 간다고 믿기도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러

10) A. W. Howit, The Native Tribes of South-East Australia, Camberra: Aboriginal Studies Press, 1996.

나 19세기에 세계종교를 집필한 베타니(G. T. Bettany)는 호주원주민의 존재론과 신념이 백인의 방문과 선교사의 가르침에 일부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11)]

19세기에 본격적인 백인의 정착이 동쪽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지면서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호주의 내륙을 비롯하여 북부 지역은 유럽 기독교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공통적인 특징으로 창조신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창조신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먼 하늘의 영역에 거주한다. 창조신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곳을 떠나 지상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는 '게으른 신'(deus otiosus)보다는 행동하는 문화적 영웅이나 꿈의 시대(dream time)에 등장하는 자생적 존재들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천상의 존재이면서도 사다리와 나무를 이용하여 지상과 천상을 오르내릴 수 있다. 인간의 거주세계는 우주가 창조된 후에 나중에 창조된다. 예를 들어, 호주 중부의 아렌테 부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눔바쿨라 형제가 진흙 속에 형성되다만 인간들을 돌칼로 잘라내어 두 다리와 열 손가락의 형상을 부여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호주 원주민들은 무지개 뱀(Rainbow Serpent)을 만물의 원천으로 간주하는데 그 뱀이 최초의 인간을 삼킨 후에 다시 몸에서 게워냈다고 믿는다. 바다와 하늘에 사는 조상의 영혼 완지나(Wandjina)들이 지상에 물을 가져와 자연과 우주의 생산력을 조절하고 대신에 인간은 그 물을 보완하는 불을 이용한다고 믿는다.[12)] 원주민들은 통과제의나 비밀 입사식에 참여하면서 지나간 세계의 거룩한 역사를 배운다. 모든 성년의식에서 성기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 참여자에게 육체적 죽음을 상징하는 신화적 지식이 전달되었다. 남아(男兒)의 경우 꼭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죽음을 상징적으로 경험한다. 동물의 피가 의례의 참여자에게 뿌려져 성스럽게 구별되어지고 혼수상태에 빠져 과거를 회상하듯이 세상의 기원을 기억해 내는 구별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그림 7] 거석에 그려진 조상의 영혼

11) Bettany, The World Religions, p. 26.

12) 김석희 역, 『위대한 주제: 세계의 신화들』(The Great Themes: World Myth), 서울: 이레, 2008, pp. 26-27.

의 토착종교와 유교에서처럼 조령은 호주 원주민 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창조신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 뒤로 물러나 있지만 지상의 인간들은 꿈꾸기를 통하여 조상의 영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그림 7]).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달리 호주 원주민의 창조신은 역사에 개입하기보다는 멀찍이 물러나 있고 대신에 뱀의 이미지로 육화하여 생명력과 창조력을 세상과 인류에 부여하는 신령한 존재로 등장한다.

Ⅳ. 와윌락 자매신화와 그 해석

호주 원주민의 신화에서 뱀, 태양, 불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상징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생명력이나 생명의 부활과 관련된 여성상징도 무시할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모든 동식물을 낳았다는 쿠나피피(Kunapipi) 여신과 관련된 비밀의례에는 원주민 여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여성비밀의례에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만들고 지형을 창조하는 와윌락(Wawilak) 자매의 신화를 들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여성들은 특별한 고통을 감내하며 긴 여행을 떠나는데, 원주민의 예술품에서 잘 나타나듯이 와윌락 자매는 아이를 팔에 안거나 배에 올려놓고 척박한 지상을 사방으로 배회하며 걷는데 그녀들이 긴 여행에 참여하는 도중에 피를 계속 흘린다. 그들이 흘린 생리혈(生理血)로부터 다양한 생명체들이 땅 위에 등장하고 그녀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형태와 이름을 얻게 된다. 이제 구전되어 온 전형적인 두 자매의 창조신화를 자세히 설명해보자.[13)]

> [1] 그녀는 팔에 아이를 안고 있다. 그녀는 배에 아이를 안고 있다. 두 자매는 걷는다. 두 자매가 걸을 때 땅이 형태를 갖는다. 그들이 걸을 때 그 형태가 이름을 갖는다. 와윌락 자매는 형태들에 이름을 붙인다. 땅에 이름을 붙인다. 그녀는 팔에 아이를 안고 있다. 그녀는 배에 아이를 안고 있다. 그들은 창으로 행태를 가리키고 이름을 짓는다. 조상들의 돌로 가리켜 이름을 짓는다.

첫째, 신화에 등장하는 두 자매는 광활한 대륙을 이주하는 고된 여정을

---

13) 필자는 본문에서 사회학자이며 인류학자인 팀 메이슨 박사의 홈 페이지에 영역된 신화를 참고하였다. http://www.timothyjpmason.com/WebPages/Stories/ Wawilak.html 이 번역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창조신화들이 수집되어 있다. 메이슨은 여성의 생리가 지닌 종교적 의미를 사회를 통합하는 여성의 역할로 해석한다.

감내해야 한다. 원주민 여성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은 부족의 보호자로서 여신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하고 땅의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에 이름을 붙이는 공간의 창조행위도 동반한다. 여성의 창조력은 아이를 낳은 인간의 재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의 생성에도 기여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신이 창조한 만물에 최초의 남성 아담이 이름을 부여하는 데 반하여 호주 원주민은 세계에 명명하는 능력을 여성의 몫으로 그린다. 여성은 부족의 후손을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돌로 만든 창을 사용하여 주변 세계에 명명한다는 점에서 조상과 세계를 매개하는 중재자이다.

> [2] 그녀는 그 형제의 아이를 안고 있다. 그녀는 그 아버지의 아이를 배에 안고 있다. 그들은 걸었다. 그들은 걸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땅이 형성된다. 땅은 그들이 부여한 이름을 받는다. 그들이 지나갈 때 땅은 이름과 형태를 갖게 된다. 그들은 많은 땅들을 거닌다.

둘째, 여성은 인류와 자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창조여신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양육하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녀의 역할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데 끝나지 않고 그녀의 형제와 부친과 동행하며 부족 공동체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통합하는 구심점의 역할도 지닌다. 그러므로 그녀의 형제들과 부친의 아이들도 그녀의 적극적인 돌봄을 받는다. 위에 묘사된 두 자매가 걸어야 할 긴 여정은 여성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성숙과 확산의 과정으로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인내와 강인함은 그녀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적 태도를 보여주고 인간 앞에 펼쳐진 광활한 땅의 생명력과 여성상징과의 동일성을 강화시켜 준다. 이름과 형태를 주는 여성은 땅의 질료에 영원한 형상을 부여하는 셈이다.

> [3] 그는 무지개이다. 그녀는 뱀, 강력한 큰 뱀이다. 그녀와 그는 무지개 뱀이다. 물 아래에. 그의 자매들이, 그의 자매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물 아래에서 그들은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그들이 창으로 잡은 고기를 요리한다.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오른다.

셋째, 원주민 신화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리되어 있지만 혼재되고 치환되며 통합되기도 한다. 무지개는 뱀의 모습을 닮았지만 물의 상징과도 연결된다. 광활한 대륙의 하늘 위로 펼쳐진 오색 무지개는 무지개뱀의 현현이다.

뱀과 무지개는 단순히 길이가 길다는 형태상 유사성을 넘어서 그 종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무지개뱀은 남녀양성이 통합된 존재이다. 그리고 무지개가 시작된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자매는 불을 피워 요리한다. 물과 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큰 뱀은 남성을 상징하는데 이 뱀을 만난 여성들의 배가 불러온다. 무지개와 뱀이 하나가 되어 무지개뱀이 되었듯이 그 뱀은 여성을 임신케 한 것이다. 여성은 불을 다루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자들은 불을 피우는 불의 관리자이며 그 불 위에서 고기를 요리하는 사회와 문화의 유지자이다. 그녀는 다양한 역할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신하고 출산한다.

> [4] 먼저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 다음엔 피가 나온다. 피가 흐른다. 흐른다. 물로 흐른다. 물 밑에서 그는 피비린내를 맡는다. 그녀는 그 물에 피를 뿌린다. 그녀가 있다. 그는 일으켜진다. 그는 일어난다. 그녀의 머리, 그녀의 몸, 그의 몸이 물 위로 올라가 사방을 돌아본다. 불이 일어난다. 불이 붙지만 타지 않는다. 고기가 구워지지 않을 것이다. 캥거루, 왈라비, 도마뱀, 늙은 캥거루가 그 불에서 일어나 물로 들어간다. 피로 들어간다. 여자의 피로. 불은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넷째, 출산 후에 여성의 출혈이 계속된다. 신화에서 그 피는 기독교에 나타나는 속죄와 희생의 피라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이다.[14] 피는 물과 섞이어 흐르고 피비린내를 맡은 무지개뱀이 전면에 등장한다. 물 위에 무지개가 홀연히 일어나듯이 무지개뱀도 고개를 든다. 생명력과 창조력을 상징하는 불이 주변에 발생하지만 화상이나 화재로 인한 해를 결코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동물들이 이 불에서 나와 다시 물로 돌아간다. 따라서 물과 불의 만남은 모든 자연물들이 창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다. 이 만물이 물에 퍼져있는 피로 다시 회귀한다. 여성에게서 나온 생명력은 결국 물과 불의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종들로 분화된 후에 다시 여성의 생명력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 [5] 피가 올라온다. 물이 올라온다. 무지개가 올라온다. 뱀이 그 머리를 든다. 그녀는 그 뱀을 본다. 그녀의 머리 위를 지나는 무지개이다. 그녀는 그 뱀을 본다. 그녀와 그녀는 춤을 춘다. 아. 그러나 피. 그 춤은 피범벅이 된 춤이다. 더 많은 피. 더 많은 피. 그 피, 그 피비린내, 출산 후에 흘리는 피, 출산 없이 흘리는 피, 그 피의 냄새

---

14) 에밀 뒤르케임, 노치준.민혜숙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서울: 민영사, 1992, p. 202.

가 올라온다. 그리고 무지개가 구부린다. 그 무지개가 구부린다. 그 무지개 머리가 그녀와 그녀를 향하여 구부린다. 그녀들은 피를 흘린다. 그 피는 무지개를 부른다. 그 무지개는 입을 크게 벌린다.

다섯째, 여성이 흘린 피는 물의 수위를 상승시키고 무지개와 뱀의 머리도 세운다. 피는 여성의 생명력이 분화된 것이다. 그녀들은 세워진 무지개 뱀을 보고 함께 춤을 춘다. 여성의 춤은 피가 충만한 춤이며 무지개를 부르는 춤이다. 여성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며 무지개를 조정하는 초월적 힘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여성은 무지개 아래에서 춤을 추며 하나가 된다. 그녀들의 춤은 피로 둘러싸여 있는 거룩한 춤이며 비린내를 따라 찾아 온 무지개는 그녀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린다.

[6] 그녀들은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들의 피는 흐르고 또 흐른다. 그 무지개는 머리를 구부리고 그 무지개는 입을 벌려 삼킨다. 그녀와 그녀는 무지개로 빨려 들어간다. 무지개로, 그 큰 뱀으로 그녀와 그녀가. 그녀는 큰 뱀이 된다. 그녀는 큰 뱀이 된다. 무지개가 말하자 땅이 형태를 갖는다. 무지개가 포효하자 그 형태가 이름을 갖는다. 그녀와 그녀라는 이름을. 무지개는 그녀와 그녀라는 이름을 준다. 그 무지개는 형태에게 이름을 붙이고 땅은 형태를 갖는다.

여섯째, 신화는 비밀의례에서 구체화되는 창조의 노래와 춤을 담고 있다. 그녀들의 노래와 춤은 머리 위에 떠 있는 무지개와 그녀들의 합일(合一)을 보여준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무지개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자매들과 하나가 된다. 결국 무지개가 자매를 삼키자 그녀들도 큰 뱀과 동일한 몸을 이룬다. 이 때 비로소 여성도 무지개가 되는데, 무지개는 언어로 땅의 형태를 만들고 그 이름을 부여한다. 여성과 하나가 된 무지개뱀은 자웅동체(雌雄同體)로서 완벽한 존재이며 땅에 형태와 이름을 동시에 부여하는 지혜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말로 창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신이 말을 사용하여 무(無)로부터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무지개뱀과 자매들이 음양(陰陽)의 조화를 이루듯이 땅을 만들어 낸다.

[7]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무지개가 말한다. "우리는." 큰 뱀이 있다. 큰 뱀은 고개를 들고 그 고개, 그녀의 고개, 그의 고개를 구름까지 올린다. 천둥이 말한다. 큰 뱀이 이름을 지었다고. 뱀들이, 큰 뱀들이 일어나 이름을 짓는다.

일곱째, 이전에 분리되어 등장했던 무지개와 뱀 그리고 자매들은 하나가 되어 "우리"로서 동일체를 이룬다. 뱀이 고개를 들어 올리듯, 무지개가 구름 뒤로 가려지듯이, 구름까지 올라가서 천둥의 증언을 듣게 된다. 이 신화에서 뱀들은 이름을 지은 지혜로운 존재이며 그 뱀 안에서 자매들이 생명력을 품고 있다.

> [8] 폭풍이 지난 후에 땅이 말랐다. 무지개는 쓰러졌다. 그것은 마른 땅 위에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다. 그 파편에서, 그 내장에서 그녀와 그녀는 굴러 나왔다. 그들은 누워있었다. 작은 게들이 그들의 살을 잡았다. 개미언덕이 움직여 그들의 살을 찾아서 모았다. 그녀와 그녀는 게들을 느꼈다. 그 게들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다.

여덟째, 물과 함께 이루어졌던 모든 자매들의 창조 행위들은 물의 부재인 가뭄으로 끝이 난다. 자매들을 삼켰던 무지개 뱀도 마른 땅 위에 쓰러져 부수어지고 그 파괴된 시신에서 자매들이 다시 분리된다. 그녀들은 창조의 행위로 힘을 소진해서일까. 땅 위에 시체처럼 늘어져 있지만 작은 게들과 개미들이 그들의 살을 모아 부활시킨다. 이러한 부활의 모티브는 창조행위의 반복을 가능케 한다. 가뭄은 오래 가지 않는다. 여성들이 흘리는 피는 비를 부를 것이고 무지개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창조될 것이다. 따라서 돌은 생명력의 부활을 영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다.

> [9] 비가 다시 내릴 것이다. 무지개는 일어날 것이다. 큰 뱀이 삼킬 것이다. 큰 뱀이 토할 것이다. 우리는 자매를, 두 돌을 본다. 그 자매는 돌들이다. 돌들.

아홉째, 마지막으로 와윌락 자매는 남성을 상징하는 무지개뱀에게 신비의 지식을 배운다. 우주가 창조된 후에, 거주지가 창조되고, 원주민들의 문화적 공간이 차례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얻는다. 특히 무지개 뱀은 호주 원주민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가 사는 연못에서 "꿈의 시대"부터 천계에서 수정유리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수정은 주술사의 내장을 광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닿는 호수나 연못의 물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무지개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15] 호주 원주민의 신화와 종교에서 남성의 지위가

15) Mircea Eliade and Ioan P. Couliano, The Harper Collins Concise Guide to World Religion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0, pp. 23-24.

지배적이며 월등한 것은 분명하지만 원주민 여성도 나름대로 비밀의례를 통하여 전해지는 신화적 지식을 토대로 여성의 의미와 역할을 강화해 왔다. 원주민들과 거주하며 신화를 연구한 여성인류학자 벨(Diane Bell)의 제안처럼 와월락 자매의 신화분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16)]

V. 삶의 철학으로서 꿈꾸기

호주 원주민의 창조신화는 꿈의 시대와 꿈꾸기에 대한 철학적 의미의 차원에서 그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기초가 이해될 수 있다. 원주민은 서구인과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그들의 형이상학을 구축하고 삶의 원리를 탐색하는 능력을 지녔다. 단 그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서양이나 한국과 다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꿈의 시대는 신화적 영웅들의 시대로서 특정한 황금시대나 에덴동산과 같이 시각적으로 원초적인 과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 있는 영원한 진리와 질서의 시간이다. 그들에게 꿈의 시대는 현대의 종교와 과학을 모두 포함한 지식과 분류의 체계이

16) Diane Bell, "Aboriginal Women and the Religious Experience," in Traditional Aboriginal Society, ed. by W. H. Edwards, Melbourne: MacMillan Company, 1987, p. 252. 벨이 여성의 관점에서 제안한 신화연구의 방법을 와일락자매신화의 연구에도 적용할 만하다. (1) 원주민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적 유산을 유지하는 권리와 책임을 신화와 의례 안에서 발견한다. 따라서 여성 관련 의례와 신화에 대한 지역별 부족별 연구가 필요하다. 호주의 넓은 지형과 수림이 가진 다양한 형태와 이름은 신화와 의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능케 한다. (2) 남성의 참여가 금지된 여성비밀의례에서 참여한 여성들은 땅과 장소 그리고 꿈과의 관계성을 기념한다. 여성신화의 주된 주제는 건강, 감정조절, 갈등해소, 사회이익 등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여성의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와월락 자매도 형제와 부친의 아이들을 기른다. (3) 여성신화에서 여성은 '양육자'(nurturer)로 부각된다. 와월락 자매는 아이를 안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 생리혈을 흘리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름이 지어진다. 그녀의 생명력은 돌과 같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지상에 남는다. (4)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평가는 원주민의 세계관 안에서 그 체계와 변화 안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생리혈을 정화의 대상 혹은 격리의 대상으로서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세계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리혈을 생명과 창조의 원천으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세계관도 공존하고 있다. (5) 원주민 여성신화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례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학자들이 남성학자보다 유리하다. 물론 원주민 여성의 신비한 상징체계를 존중할 수 있는 여성연구자가 필요하다. (6) 원주민여성의 삶은 의례적 행위를 통하여 지식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땅과의 긴밀한 관계와 영적인 연결을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다. 원주민의 철학은 바로 이 꿈의 시대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호주국립대학교의 스태너교수는 돌아가고픈 '꿈의 시대'(the time of dream)라는 정태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꿈꾸기"(dreaming)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 점에서 나중에 정착한 백인은 원주민처럼 꿈을 꿀 수 없었다. 원주민은 언제든 신화와 의례를 통하여 꿈을 꿀 수 있었지만 꿈을 허구로 생각하는 현대인에게는 무의미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꿈꾸기를 단순히 시간 안에 있는 과거를 향한 갈망이나 그리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엘리아데의 『세계종교사상사』가 우리에게 미완으로 남겨졌지만 우리는 그의 지향점과 꿈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아프리카, 호주, 북남미의 원주민 종교들로 채워졌을 마지막 저서는 종교들은 진화의 단계가 아닌 동시대의 다양한 유형들의 종교들과 비슷한 종교적 의미의 찾기로 간주했을 것이다.

호주 원주민은 남녀의 사회원리를 비인간의 영역, 다시 말해 동물, 식물, 광물을 포함한 자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한다.[17] 원주민사회는 주로 친족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부족 안에서 사용하는 원리를 경험하는 세계를 분류하고 이해하는 데까지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형제와 자매라는 용어는 특정한 새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내륙의 사막화와 북동해안선의 변화 외에는 특이한 자연변화가 없었던 원주민들은 삶을 대체로 긍정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들의 삶에는 절망도 포기도 낙관도 비관도 신앙도 무관심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삶은 '하나의' 가능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극의 개념도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운명을 결정하는 정의로운 신도 불의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만 년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호주의 자연환경이 이러한 긍정의 철학을 갖도록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원주민의 삶 가운데 고통, 아픔, 슬픔, 불안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그들은 그러한 감정들과 계속 씨름한다. 의례에서 신화를 기억함으로써 고통과 슬픔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삶과 화해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평화는 무엇인가? 적어도 원주민에게 평화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역사 안에 일어난 비극을 이해함으로써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18]

스태너는 우리가 원주민의 꿈꾸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17) 에밀 뒤르케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p. 190.

18) W. E. H. Stanner, "The Dreaming," in Traditional Aboriginal Society, [1956] ed. by W. H, Edwards, Melbourne: MacMillan Company, 1987, p. 233.

바로 현상학적 방법으로 공감적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원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원주민처럼 생각하기"(think black) 위해서는 서구의 이해범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원주민들 자신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마음과 몸, 몸과 영혼, 인격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할 때가 많다. 사실 이러한 이항대립이 통합된 실체로서 하나의 개인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지만 양자를 독립된 실체로서 심지어 상반된 실체로 인지할 때가 흔히 있다. 그러나 호주 원주민은 정신, 영혼, 육체, 이름, 그림자 등을 통합적으로 사고한다. 따라서 그들의 몸에서 가장 은밀한 부분이라 여기는 그들의 이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며 망자의 이름을 대화에 거론하는 것을 피한다. 나아가 토템이나 영혼과 연결된 장소도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자아의 개념보다는 통합되고 확대된 자아의 개념을 지닌다. 우리가 몸, 영혼, 정령, 그림자, 이름, 성지, 토템의 개념들 뒤에 있는 일체성의 개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원주민처럼 생각할 수 있다. 형제와 자매를 하나로 보고, 자손을 조부모와 일체로 보며, 깨어 있는 삶과 꿈꾸는 삶을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원주민은 한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성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꿈꾸는 행위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 토착 남성은 꿈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아내에게 인도함으로써 임신하게 되는 것이다. 꿈에서 영혼을 만남으로써 예술가는 감동을 받아 새 노래를 부르고, 꿈에서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다. 원주민은 꿈을 통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된 신비주의적 사고가 원주민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며 사막과 해안선의 변화 등 자연의 형성과 변화를 자연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19]

원주민들은 '꿈꾸기'를 통하여 세계를 설명한다. 경이로운 현상으로서 불과 물의 기원, 주술과 그 효과, 언덕, 강, 수원(水原)의 기원, 일월성신의 기원을 다룬다. 또는 자연과 문화의 형성을 설명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분리, 캥거루의 검은 코와 고슴도치의 바늘, 부족, 씨족, 언어군의 형성, 수원, 바람, 나뭇잎에 거하는 아이의 영혼들을 언급한다. 나아가 '꿈꾸기'는 현대의 관습이 '꿈의 시대'에도 이미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족외혼, 통과

19) Stanner, "The Dreaming." pp. 226-229.

제의뿐만 아니라 간음, 배신, 살인과 같은 범죄도 있었다는 것이다. 우주의 창조와 유지가 신화로 설명되면 원주민은 명쾌한 삶의 해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삶에 대한 신화적 해답은 '개념'(definition)의 형태가 아니라 "이유와 방식"(why and how)에 대한 실체와 진리의 '시적 열쇠'(a poetic key)로 주어진다.[20] 신화 그 자체는 선함이나 도덕적 보증이 될 수 없으며 인간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범례에 따라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21] 스태너는 서양인에게 철학이 있듯이 원주민에게는 신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순히 추상적 개념과 명제의 체계화나 나열에 매달리지 않고 신화라는 철학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원주민신화를 읽을 때 우리는 모순된 요소와 이야기의 단절 그리고 파편을 쉽게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의 지적인 역사는 다른 이들의 역사들을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가장 나쁜 형태의 제국주의"가 바로 선입견에 토대를 두어 타자의 가치에 판단을 감행하는 것이다.[22]

엘리아데는 쿠나피피의 신화에 대하여 강조하듯이, 쿠나피피는 "늙은 여인"이며 동시에 와월락 자매를 삼켜서 다시 소생시키는 뱀이다. 그러므로 이 뱀은 여성이며 동시에 남성이 공존하는 양성구유(兩性具有)의 초인간적 존재로 등장한다. 절대적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로서 무지개 뱀은 '역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을 드러내는 분화 이전의 '총체성'(totality)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뱀은 남성으로 묘사될 때조차도 자궁이 있는 남성으로 묘사가 된다. 호주 원주민이 바라는 꿈의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결합, 물과 불의 결합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시작을 의미한다. 무지개 뱀은 더 이상 일상적인 무지개도 더 이상 일상적인 뱀도 아닌 신화적 존재, 우주적 존재,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꿈의 시대'의 존재인 것이다.[23] 엘리아데의 설명에서 나아가 쿠나피피의 신화는 여성의 연대성과 지속성을 강화한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젊은 여성은 지혜가 있는 또 다른 여성 연장자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여성성은

---

20) Stanner, "The Dreaming." p. 226.

21) 미르세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Myth and Reality),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5, p. 173.

22) Stanner, "The Dreaming." p. 229.

23) Eliade, Australian Religions, pp. 113-116.

인간사회에 창조와 부활의 반복을 가능케 한다. 신화는 구술되어지고 의례 속에 재현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결국 신화적 지식은 여성의 삶을 지탱하고 성숙케 만든다.

Ⅵ. 결론: 자연과 타자는 확대된 자아이다

요컨대 호주 원주민의 자매신화는 여성의 연대성과 생명력 나아가 부활의 모티브를 잘 나타낸다. 이는 남성 중심의 호주 원주민사회에 여성의 종교적 역할과 의미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과 불, 남성과 여성, 고대와 현대,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신화 만들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전히 삶과 죽음의 새로운 의미를 제공한다.

인류는 자연과 타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오랜 정복과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왔지만 호주 원주민신화가 형성하는 신화적 세계관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확대된 자아(自我)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확대된 자아는 상징화된 사회체계나 토템으로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개별성과 독특성보다는 인간의 통합성과 연대성을 더 강조해 온 원주민의 '꿈꾸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미 '타자의 신화'가 되어 버려 그 의미가 더 이상 소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거의 날마다 정치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를 경험하며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수만 년 동안 반복적으로 신화를 노래하고 동일한 의례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읽어 온 호주 원주민은 현대인들의 삶에 일종의 도전을 선사한다. 여전히 잘 해독되지 않는 파편화된 '그들의 신화'(Their myths)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다른 성(性)을 억압해 온 현대인들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지혜와 철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올해 호주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재산과 인명의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퀸즈랜드주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났고 빅토리아주에는 사이클론이 발생했으며, 이웃나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한반도의 이번 여름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잦은 방문으로 큰 몸살을 앓았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명쾌한 설명이 불가능한 여러 자연재해를 경험하며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호주에서 원주민의 신화를 왜곡해

왔던 백인의 기독교문화가 그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최근 불교, 힌두교, 이슬람, 바하이신앙, 토착종교 등의 다양한 종교문화들이 등장하며 다종교·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호주의 자매신화처럼 인간의 삶은 지금까지 '타자'로 인식해 왔던 자연의 '자아'됨을 회복하고 또 다른 '타자'로 등장한 이웃 문화와 유기적 삶의 관계를 성취할 때 비로소 지구의 생명력과 인간의 연대성을 회복하며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여성상징, 호주 원주민신화, 자매신화, 무지개뱀, 꿈꾸기

원고접수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5일

참고문헌

김석희 역, 『위대한 주제: 세계의 신화들』(The Great Themes: World Myth), 서울: 이레, 2008.

미르세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Myth and Reality),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5.

에밀 뒤르케임, 노치준..민혜숙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서울: 민영사, 1992.

웬디 도니거 오플래허티, 류경희 역,『다른 사람들의 신화』(Other Peoples' Myths: The Cave of Echoes), 서울: 청년사, 2007.

임봉길 외, 『세계 신화의 이해』, 서울: 소화, 2010.

조셉 캠벨 · 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The Power of Myth), 서울: 고려원, 1992.

Bell, Diane. "Aboriginal Women and the Religious Experience," in Traditional Aboriginal Society. ed. by W. H. Edwards, Melbourne: MacMillan Company, 1987.

Bettany, G. T. *The World Religions: A Popular Account of Religions Ancient and Modern*. London: Ward, Lock & Co., 1890.

Eliade, M. *Australian Relig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Eliade, M. and Couliano, Ioan P. *The Harper Collins Concise Guide to World Religion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0.

Howit, A. W. *The Native Tribes of South-East Australia* [1904]. Camberra: Aboriginal Studies Press, 1996.

Pybus, Nani Suzette. *Whirl Wind Woman: Native American Tornado Mythology and Global Parallels*. Oklahoma State University PhD Thesis, 2009.

Stanner, W. E. H. *On Aboriginal Religion*. Sydney: SUP, 1966.

Stanner, W. E. H. *"The Dreaming," in Traditional Aboriginal Society*. [1956] ed. by W. H, Edwards, Melbourne: MacMillan Company, 1987.

Strehlow, T. G. H. *Songs of Central Australia*. Sydney: Angus & Roberston, 1971.

Yeongoyan, Aram A. *"Economy, Society and Myth in Aboriginal Australia," in Traditional Aboriginal Society.* ed. by W. H. Edwards. Melbourne: MacMillan Company, 1987.

<Abstract>

A Study on Female Symbol in Australian Aboriginal Myth:

with Special Reference to Myth of Sisters

Ahn, Shin(Pai Chai Universit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s of female symbol in Australian Aboriginal myth. The author chose the Katoomba myth of three sisters and the myth of Wiwilak sisters. These myths are the sacred narratives containing the truth about the life and death of humanity, not an illusionary fiction.

The process of the colonization of European prisoners made the main themes of aboriginal myths distorted and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needs of colonizers. The life-giving power of female symbol was lost and the wisdom of aborigines was despised. The evolution theory regarded aborigines as the lowest race in the world, and the dichotomy of Western culture made aboriginal ontology misunderstood.

The myth shows us the hidden history of colonialism and the forgotten power of female sexuality. In the Wiwilak myth, two sisters walked on the land taking care of babies and bleeding. Their long journey with continuous bleeding created animals whereever they visited. And they gave names to the shapes which they created. After the rainbow snake swallowed sisters, they became a hermaphrodite. This union of male and female empowered the world and the new life began.

In conclusion, the myth of sisters shows us the solidarity of woman and the continuity of mysterious knowledge transmitted

within the female circle of aboriginal tribes. Myth teaches us that nature (or environment) are not the simple objects of exploitation but the extended ego that we should understand for coexistence and harmony.

Key words: Female symbol, Australian Aboriginal myth, Myth of sisters, Rainbow snake, Dreaming